

# 지방 주택시장 '꿈틀'... 바닥 찍었나

광주·전남 청약률 높아지고 미분양 감소세

## 수완지구 호반 베르디움 20일만에 85% 계약도

지역의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분양을 했던 건설사들이 좋은 실적을 거둔데다 미분양 아파트도 줄고 있다.

호반건설이 수완지구17-2 블록에 호반 베르디움(85㎡형 1175가구)이 계약을 시작한지 20여 일만에 85%의 계약률을 보였다.

이 아파트의 경우 청약 당시 경쟁률이 최고 7.8대 1에 달했으며 평균 경쟁률도 4.2대 1로 마감돼 주목을 받았었다.

당시 대부분의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높은 청약률이 계약으로까지 연결되기에 무리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나,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계약은 8월 초 현재 85%를 넘어서고 있다.

회사 측은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560만~580만원 선으로 책정해 수요자의 관심을 끌었으며, 최고 55㎡면적을 제공하고, 밸코니도 무료로 확장해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4월 수완지구에 분양을 했던 대방 노블랜드도 평균 1.16대 1의 청약경쟁률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다.

수완지구 8-2블록과 8-4블록의 대방 노블랜드 2차는 각각 545가구와 391가구 모집에 703명, 384명이 신청해 1.29대 1과 0.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월 현재 분양률은 80~90% 대에 이른다.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도 3순위 청약에서 84㎡형 425가구 모집에 1346건이 접수돼 최고 3.17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었다.

또 71㎡형은 349가구 모집에 400명의 수요자가 몰려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분양 아파트 또한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미분양주택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2008년 11월 12만672건이었던 미분양 주택이 6월 말 현재 2822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남도 미분양 주택이 2008년 10월 6844건에서 6월 말 현재 3397건으로

줄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이 집값이 하락한 가운데 집값이 2.13% 상승했다.

지역 건설업체는 부동산 경기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심하게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계약률을 보이고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분양가도 적정한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최근 분양을 했던 업체들의 분양실적이 좋다"며 "공급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하반기에도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업들 '광복절 애국 마케팅'

광복 65주년을 앞두고 기업들의 '애국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과 한일병합 100주년을 맞아 광복절의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을 고려, 고객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광복절인 15일 대형태극기를 계약하기로 했다.

이 백화점은 지난 10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자는 취지의 한국사 능력 검정시

험도 실시했다.

또 지난달 전국 31개 대학 총장들의 추천으로 선발된 대학생 31명이 안중근 의사의 독립 투쟁자를 탐방하는 행사를 후원했다.

안중근 숭모회와 공동으로 하얼빈의 거리 등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위업을 담은 '안중근 의사 일대기 도록' 발간하고 초·중·고교 및 대학교 도서관에 1000부를 기증했다.

애경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AK몰(www.akmall.com)은 9

일 웹 공간에 흩어져 있는 태극기 조각 5개를 찾아 맞추면 추첨을 통해 적립금을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순국 100주년을 맞은 안중근 의사의 기리는 지원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1일 중국 하얼빈에 거주하는 안 의사 조카며느리 안노길(97) 할머니를 방문해 냉장고와 기념관 운영비,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매달 생활비와 기념관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강신호 회장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1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안 의사 기념품 제작 등에 총 2만2000달러를 지원했다.

삼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정신이자 김구 선생의 개인 사저였던 '경교장(京橋莊)' 원형복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빙그레는 김구 선생 기념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 대형 태극기 내걸고 '안중근 도록' 발간 기증

일 웹 공간에 흩어져 있는 태극기 조각 5개를 찾아 맞추면 추첨을 통해 적립금을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순국 100주년을 맞은 안중근 의사의 기리는 지원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1일 중국 하얼빈에 거주하는 안 의사 조카며느리 안노길(97) 할머니를 방문해 냉장고와 기념관 운영비,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매달 생활비와 기념관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강신호 회장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1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안 의사 기념품 제작 등에 총 2만2000달러를 지원했다.

삼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정신이자 김구 선생의 개인 사저였던 '경교장(京橋莊)' 원형복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빙그레는 김구 선생 기념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 기아차, 러시아서 펼칠 날았다

### 7월 1만대 판매... 수입차 중 월간 판매 첫 1위

기아자동차가 지난 7월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업체 중 월간 기준으로 첫 판매 1위에 올랐다.

11일 유럽인협회(AEB)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달 러시아에서 작년 동기(5124대) 대비 105% 증가한

총 1만502대를 판매, 현대차 판매량을 제외하고도 단일 수입차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기아차는 씨드(3253대), 프라이드(수출명 리오, 3205대), 스포티지(1677대) 등이 판매 호조를 보이며

서, 시보레(8986대), 르노(8574대), 도요타(8251대) 등을 2~4위로 따돌렸다.

기아차는 1~7월 누계로도 5만6231대로, 시보레(6만1996대)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현대차는 7월에 7201대를 팔아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56%나 신장했지만 7위에 그쳤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두 회사가 합쳐 총 8만4278대를 판매, 지난 상반기 러시아 수입차 시장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연합뉴스

※수치는 전일 총가 기준

### 코스피지수

1,758.19 (-22.94)

### 코스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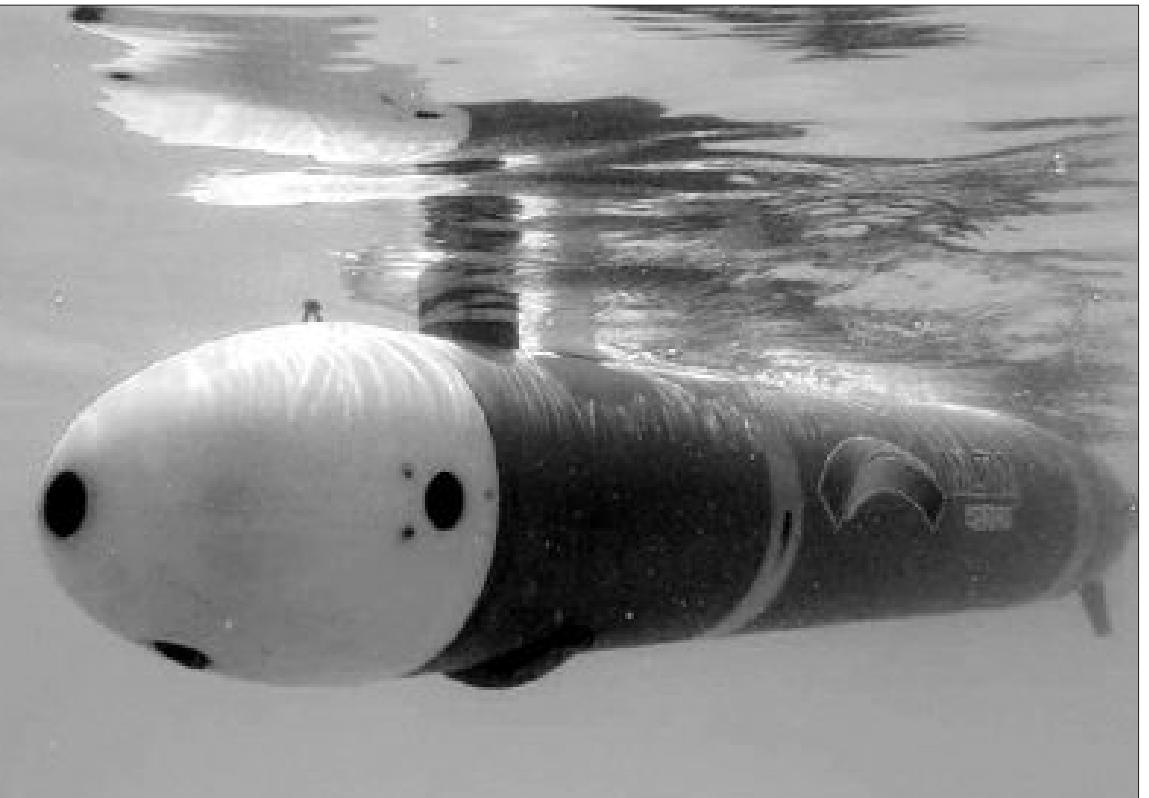
475.14 (-7.02)

### 금리 (국고채 3년)

3.83% (-0.08)

### 원·달러 환율

1,182.50원 (+13.80)



## 무인잠수정 '이심이 100'

국토해양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주한회와 자율무인잠수정 '이심이 100'의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한화

는 김시·정철, 자원팀사용인 이 잠수정의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발비로 2007년부터 모두 35억원을 투입했다.

/연합뉴스

## 대기업-중기 '불공정 분쟁' 급증

올들어 426건 접수... 지난해보다 30% ↑

올해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조정사건은 모두 4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8건)

에 비해 30%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접수사건의 조정성립률은 2009년에는 76%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82%로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정성립률이 높아졌다

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도 함께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행위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중소기업에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대기업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부터 조정원이 분쟁을 조정한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1537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340건이 처리됐다.

/연합뉴스

## 녹색기업, 병역 특례업체 지정 우대

### 부설 연구소에 가점 부여

병역특례 업체를 지정할 때 녹색기업의 부설 연구소에 가점을 주는 등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도입한 녹색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에 관한 부처별 융자사업에서 녹색인증을 인정하기로 했다.

증기업을 우대하고, 녹색기업에는 정책자금 융자한도에서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수출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 발주 공사에서 가점을 인정해 계약보증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다.

공공구매 평가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특히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KBS 등 지상파 3사 광고료를 70%까지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병역특례 업체 선정 시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에는 가점을 주고, 정부 출연연구소의 석·박사급 인력을 과연 시에도 우선 순위를 부여해 지원된다.

김현태 공단 기업금융사업처장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사회적 기업은 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단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 중企 정책자금 50억원

### '사회적 기업' 우선 지원

작은만남 큰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 형제우리웃·이불

동구 금남로5가 동부화재 건너편  
제랑한복·이불·수예·흔수 전문  
대표 모상천

☎(011)9213-2222

### 킴스안경·콘택트

북동 롯데백화점 맞은편  
누진디초점렌즈전문, 오픈기념전품목  
50%~30% 할인, 365일 최저가 할인점

☎(062)515-7007

### 둘둘 종합 카센터

북구 양신동 한국장애인상공사 정문 앞  
경정비, 에어컨, 냉장고, 티비, 폐차,  
각종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상담

☎(062)572-2222

### 삼보컴퓨터 광산총판

광산구 수원동 모이엘가 상기동 103호  
잉크·토너 충전 및 판매,  
사무실 소형네트워크공사

☎(062)951-8569

### 이보영의 토킹클럽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옆 5층  
유치부, 초, 중, 고 학습전문

원장 이영미

☎(062)385-0580

### 초원목장